

축구

8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가와사키 GK 정성룡

울산, 오늘 가와사키와 ACL 조별리그

울시즌 무패 울산 정성룡을 뚫어라

조별리그 통과 위해 넘어야 할 산

울산 현대는 10일 오후 8시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H조 3차전을 앞두고 있다. 1승1무를 거둬 조 1위에 올라 있는 울산이 조별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와사키와의 홈경기에서 반드시 승점3을 따야 한다. 상하이 상강(중국), 시드니FC(호주)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이 한 조에 속해 있는데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 원정이 예정돼 있다. 홈에서 벌어지는 이번 경기를 승리해야 잔여 일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가와사키는 1승1패로 조 3위에 머물러 있지만 만만치 않은 팀이다. 지난해 일본 J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호다. 올 시즌 J리그에서는 1승4무1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6경기에서 5실점만 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좋다. 가와사키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한국인 골키퍼 정성룡(34)이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그는 녹슬지 않은 기량으로 가와사키가 최근 몇 년간 호성적을 거두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와사키 오나키 두루 감독은 경기를 하루 앞둔 9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성룡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도루 감독은 “그라운드 내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열심히 하는 선수다. 팀에 안정감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모범적인 그는 언제나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다”고 호평했다. 울산은 올 시즌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공격 2선과 최전방을 고루 보강했다. 그 덕분에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K리그1에서 4승2무를 기록하며 선두에 나섰다. K리그1 12팀 중 유일한 무패다. 그 뿐 아니라 AFC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도 올해 공식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울산이 K리그 선수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가와사키 골키퍼 정성룡을 극복하고 득점포를 가동하며 승점3을 손에 넣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 명분·실리 모두 잡아야 성공한 축구외교

‘중동 카르텔’ 맞설 ‘다국적 네트워크’ 필요

정몽규 회장 FIFA·AFC 선거서 패배
한국축구 국제무대 발언권 줄까 걱정
한·중·일 등 새로운 세력 규합 필요
아시아 위한 비전·진정성도 있어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창립된 해는 1954년이다. 창립 멤버는 12개국이었는 데, 한국은 초창기 AFC 행정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경기력 향상이 더 급했다. 처음으로 AFC 부회장에 당선된 인물은 장덕진 제31대 대한축구협회장이었다. 그는 1970년 12월 AFC총회에서 수석부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경제 관료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박스킵을 창설하는 등 국내 저변확대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축구외교에 본격적으로 눈을 뜬 건 1990년대 들면서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 수장에 오른 정몽준 회장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AFC 몫의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으로 활약하며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 개최를 이끌어낸 건 16년

간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정 회장의 위상은 아시아를 넘어섰다. AFC를 장악하고 있던 중동에 맞설 정도의 세력 확보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리더십이 돋보였다. 가장 눈에 띈 건 특유의 자신감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거침이 없었다. 대표적인 게 2002년 FIFA 회장 선거 때였다.

그는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축구연맹(CAF) 회장을 지지하면서 재선을 노린 블레어 FIFA 회장과 대척점에 섰다. 유럽축구연맹(UEFA)과도 가까웠다.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폭넓었다. 정 회장은 블레어의 독단적인 재정운영과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폭로하며 경쟁을 주도했다. 그의 주장에는 공감을 살만한 부분이 많았다. 비록 선거에서 패했지만 정 회장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2011년 정 회장의 FIFA 부회장 낙선은 큰 충격이었다. 2015년 FIFA 회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중도에 징계를 받은 것도 한 악재였다. 마피아처럼 자기들끼리의 울타리가 공고한 FIFA나 AFC에서

발언권이 줄어들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다.

정 회장의 사촌인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AFC에 도전장을 내민 건 2015년이다. 하지만 집행위원 선거에서 탈락했다. 중동 세력이 내린 ‘합종연횡’ 제의를 거부했던 게 패인으로 분석됐다. 아시아 축구는 쿠웨이트를 비롯한 카타르, 바레인 이 형성한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셰이크 살만 AFC 회장(바레인)과 셰이크 아흐마드 아시아 올림픽평의회(OCA) 회장(쿠웨이트) 등이 중심인물이다.

정몽규 회장은 2017년 2년 임기의 FIFA 평의회 위원에 당선되면서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비리 혐의를 받던 셰이크 아흐마드 OCA 회장이 출마를 포기한 덕분이다.

하지만 재선을 위한 자산 확보에는 실패했다. 6일 치러진 FIFA 평의회 위원과 AFC 부회장 선거에서 졌다. 이제 한국축구는 또 다시 무관이다. 실력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력이라는 점에서 격정스럽다.

아쉬운 대목은 정 회장의 행보다. 그

는 “중동 세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낙선 원인”이라면서 “AFC가 중동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 카르텔이 견고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 축구인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카르텔을 뚫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그 정도의 집념과 열정으로 싸웠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지름길은 세력 규합이다. 동아시아 세력이 똘똘 뭉친다든지 또는 아시아 전체에 걸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중동 세력을 압박해야한다. 중요한 순간마다 판이 깨진 한·중·일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할 때 리더십은 더욱 빛나는 것이다. 또 아시아 전체를 위한 비전 제시와 함께 과연 공감을 살만한 진정성을 보였는지도 되돌아볼 일이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축구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걸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소용없다. 즉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명분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겨야 성공한 축구외교라 할 수 있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ng2@donga.com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의 지소연(오른쪽)이 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전반 28분 동점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춘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원샷 원킬’ 동점골…지메시 ‘킬러 본색’

아이슬란드와 2차전 선제골 쫓지만
에이스 지소연 상대 빈틈 뚫고 한방
당치 큰 상대 몰아붙인 후반도 강렬

꼭 필요한 순간, 작은 찬스를 놓치지 않는다. 가장 절실할 때, 모두가 지쳤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쏠린다. 에이스는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하는 법이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에게 지소연(헬시)이 그런 존재다.

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북유럽 아이슬란드와 A매치 2차전에서도 지소연은 기대에 100% 부응했다. 미세한 상대 빈틈을 뚫은 한 방으로 잠시 흐트러졌던 팀 분위기를 살렸다. 개인통산 115번째 A매치에서 터진 54번째 득점포.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사흘 전(6일) 용인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2-3으로 패했다. 전반 두 골을 먼저 내줬고, 후반 동점을 만들었으나 추가시간을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 설욕을 다짐하고 임한 두 번째 승부. 1차전에서 새도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맡은 지소연은 공격 2선 중앙에서 뛰었다.

프랑스·노르웨이 예방주사 맞은 윤덕여호

현장리포트

A매치 2연전서 GK까지 기량 점검
포메이션에 따른 전술 이해도 확인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다음달 초 월드컵 최종엔트리 선정을 염두에 둔 태극낭자들의 마지막 강화훈련이 시작되고, 스웨덴 사전훈련캠프를 거쳐 격전지에 입장한다.

본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향후 실전 기회는 전훈련캠프에서 진행될 스웨덴전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용인(6일)과 강원도 춘천(9일)을 이동하며 소화한 4월 아이슬란드와의 A매치 2연전은 여자축구대표팀 윤덕여 감독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다.

그동안 여자대표팀은 국제 경쟁력을 확

한국은 2차전에서도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22분 아이슬란드 캡틴 이르사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것을 라켈이 머리로 밀어 넣었다. 갑작스레 깨진 균형에 윤덕여호의 전열이 흔들렸다.

다행히 아쉬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소연이 있었다. 6분 만에 동점을 만들었다.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오른쪽 날개 강채림(현대제철)의 침투패스를 받아 문전 한복판에서 상대 수비를 뚫은 뒤 세도하며 낮게 깔리는 슈트로 골 망을 갈랐다. 1-1. “유럽의 강한 힘과 특유의 스피드에 대응하려면 더욱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던 지소연의 영리한 움직임이 답답할 뻔한 흐름을 바꿨다.

지소연의 활약 속에 전반을 대등하게 싸운 한국은 후반전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다. 조커로 아껴둔 이민아(고베 아이나)를 투입하며 공세를 최대한 유지했다. 체력의 열세는 감출 수 없었으나 1차전 초반부터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 설욕을 다짐하고 임한 두 번째 승부. 1차전에서 새도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맡은 지소연은 공격 2선 중앙에서 뛰었다.

춘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인하기 위해 장거리 여정을 감수해야 했으나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2015년 11월 호주전 이후 4년 만에 국내 여자 A매치를 개최했다.

실제로 윤 감독은 알차게 이번 일정을 소화했다. 골키퍼까지 다양한 선수들을 투입해 개개인의 기량과 가능성을 점검했고, 포메이션 변화를 통한 전술 이해도를 확인했다. 본선 조별리그 A조에서 경쟁할 프랑스, 노르웨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탐이었다.

1, 2차전 선발명단과 포메이션 구성이 크게 달랐다. 1차전에서 2선 공격수 지소연(헬시)을 새도 스트라이커에 배치하고, ‘만능 미드필더’ 조소현(웨스트햄)을 중앙수비로 돌리는 변형 4-2-3-1 시스템을 가동했다면 2차전은 조소현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금민(경주한수원)을 최전방, 1차전 원 톱 예민지(수원도스사상)를 2선 중앙으로 내려 변화를 줬다. 상대는 동일한 패턴이나 최대한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찾겠다는 벤치의 의지였다.

춘천 | 남정현 기자